

Dextrin, 대한제당-삼양사 경쟁

수요시장 활성화 따라 대상도 참여 ... 공업용 수입도 확대추세

국내에서 Dextrin 수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한제당은 일본 Matsutani 제품은 프리믹스한 후 수출하고 있고, Roquette 제품은 DE6, DE9, DE19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Roquette 제품은 대한제당과 삼양제넥스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대한제당은 2001년 미국 Staley 제품도 소량 수입했고, 2002년부터는 새로 Matsutani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경농산은 Staley 제품을 연간 300톤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해 스프린트로 사용하고 있고, 국산도 액상과 분말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대상은 2002년 처음으로 덱스트린을 수입했으며, DE-10이하 그레이드를 9월말까지 100톤 수입했고, 세우도 월 20톤(연간 250톤)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Matsutani는 DE10 이하의 그레이드를 일본 본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Non-소화성 덱스트린으로 월 80-90톤을 수입해 국내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비소화성 덱스트린은 DE10 이상의 제품으로 식이섬유류에 해당된다.

한국Matsutani는 설탕조제품(프리믹스) 제조용으로 40톤을 수입해 프리믹스화해 일본으로 재수출하고 있고, 스프레이기제, 부형제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공급제품의 종류는 TK-16(고순도말토덱스트린 DE18), MAX-1000(고순도덱스트린 DE8), PINE FLOW-S(고순도덱스트린 DE7), PINEDEX-10(불용성덱스트린 DE3) 등이 있다.

공업용으로는 툴리서쎈코터스코리아, 유림산업사, 경신상사, 한솔파텍, 오공, 내쇼날스타치, 유진화학공업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툴리서쎈코터스코리아는 독일 Emsland Starch 제품을 전사지용으로 연간 84-100톤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제지용 덱스트린은 주로 종이와 인쇄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며 분말형으로 DE는 1.0-2.0g/100g이다.

유림산업사는 중국산을 연간 90톤을 수입해 염료 제조과정에 사용하고 있고, 경신상사는 대양산업의 수입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양산업은 Glue(풀) 제조용으로 연간 30톤을 소비하고 있다.

한솔파텍은 독일의 Emsland Starch 제품을 수입해 제지용 바인더로 연간 20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용 바인더는 대부분 전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솔파텍은 2001년 수입 800톤, 국산 3000톤 등 4000톤의 전분을 소비했다.

내쇼날스타치는 해외의 자사제품을 수입해 소량 판매하고 있으며, 유진화학공업은 수입해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다.

덱스트린은 전분당을 가수분해해 얻어진 제품으로 말토덱스트린이라 불리며 전분당과 당류 사이를 총칭하는데 크게 DE10 이하, DE10-20, DE-20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DE10 이하는 가용성 전분이나 덱스트린, DE10-20을 말토덱스트린, DE20 이상을 가루엿이나 말토덱스트린이라 부른다.

<Chemical Daily News 2003/ 01/ 15>